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6호 [루계 제23168호] 주제99 (2010) 년 8월 4일 (수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들여나가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 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합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짜범기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흥석형동지, 태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합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류현식동지를 비롯한 도와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또다시 만나뵙고 통성의 보고를 드리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된 통성과 흥남의 로동계급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온 나라가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영의와 빛나는 로역적

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함흥시내로 통계급도 생산과 건설에서 거세찬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통성과 흥남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주신 전투적인 파업을 판월하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므로써 기계생산과 대상건설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조업을 앞둔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선군주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선군주물공장은 혼자, 조형, 용해, 사락 등 모든 생산공정들이 컴퓨터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현대적인 공장이다.

공장의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로역과 전력소비를 극력 줄이면서도 질좋은 주물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으며 생산문화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통성의 로동계급은 기계공업의 기초

인 주물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주물공장건설을 성과적으로 끌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정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시간에 걸쳐 주물공장의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 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瞭解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첨단기술로 장비된 흐름식생산공정들과 정갈하게 꾸려진 작업장들에서 질좋은 각종 주물품들을 꽂꽝 생산하는 장쾌한 모습을 보시고 현대적인 주물공장을 훌륭히 건설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성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물공장을 일떠세워 주물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에 새로 일떠선 선군주물공장은 능력에 있어서나 기술장비에 있어서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적수준의 주물생산기지가 꾸려진 결과 통성기계련합기업소는 굴지의 대기계생산기지로서의 제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주물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백질불굴의 완강한 의지의 힘으로 강성대국건설력사와 더불어 결이 전해질 귀중한 창조물을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악랄한 고립압살책도 혁명의 불길속에서 백배, 천배로 억세여진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금 힘있게 증시한 사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주물공장은 우리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을 현대화하고 기계생산을 늘이는데서 주강파 주물, 단조와 같은 기초공정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이 공장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주물공장은 주물생산능력이 매우 크기때문에 다른 공장, 기업소들의 주문을 받아 여러 가지 주물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물생산을 전문화해야 제품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량비도 없앨 수 있으며 통일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에게 기술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2 면 으로 계 속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 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와 공장의 일군들이 생산지도수준을 더욱 높여 실리주의 원칙에 맞게 직장관리운영을 짜고 짚으로써 현대화본보기공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생산정형을 교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창건 65돐전으로 올해 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다는 기업소일군들의 확신에 넘친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로동계급의 비상한 투쟁열의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통성의로동계급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의 위엄을 앞장에서 밟들어온 참으로 충성스러운 영웅적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쓰아울린 빛나는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와 같은 수많은 강위력한 기계공장들의 힘있는 뒤받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나라의 경제력을 급속히 강화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경제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뛰어난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공정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흥남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할 풍성의 일념을 안고 비료 생산전투를 힘 있게 벌리는 한편 우리나라 화학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가스화공정건설에서 련일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당원들과 건설자, 지원자들은 1년 남짓한 기간에 낡은 건물들과 콩크리트구조물을 통째로 들어내고 가스화대상의 1단계 공사에 예견된 방대한 량의 구조물건설과 대형 산소분리기, 가스발생로를 비롯한 설비 조립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지금 건설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스화공정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조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드넓은 건설장에 선 군소선의 위용을 멀찌며 거창하게 일떠선 용장한 구조물을 과 집채같이 들어앉은 대형설비들을 보시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나라의 만년재부를 마련해가고 있는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의 로동계급 건설자, 지원자들이 조선이 결심하면 한다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흥남땅에 천지개벽을 이루하였을뿐 아니라 승리의 개기를 읊릴 시각을 눈앞에 바라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홍땅에서 가스화생산공정이 성과적으로 완공되어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고 동해안의 흥남땅에 가스화공정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 있는 이 경이적인 전변은 우리가 애써 마련한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의 일대 파시로 되며 당의 결정지시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무조건 판철하는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위대한 발현으로 된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이 완공되면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주체적인 비료생산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될뿐 아니라 식량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건설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강위력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가장 실려있는 주체적비료생산체계를 완성하는데 총력량을 집중하여 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김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비료폭포가 쏟아지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3면으로 계속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
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섬멸전의 방법으로 와닥닥 끌내기 위해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물론 대상설비를 담당한 기업소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내각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의 지도방조를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가스화는 우리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공사인것만큼 모든 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한다는 깨끗한 땅심을 가지고 주인다운 입장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가스화공정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화학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스화 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것과 함께 화학공업의 중요한 기초원료의 하나인 메타놀생산공정건설도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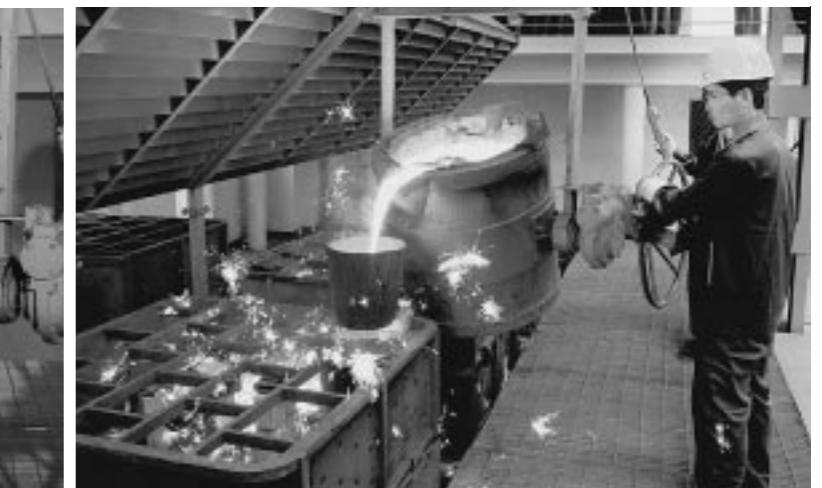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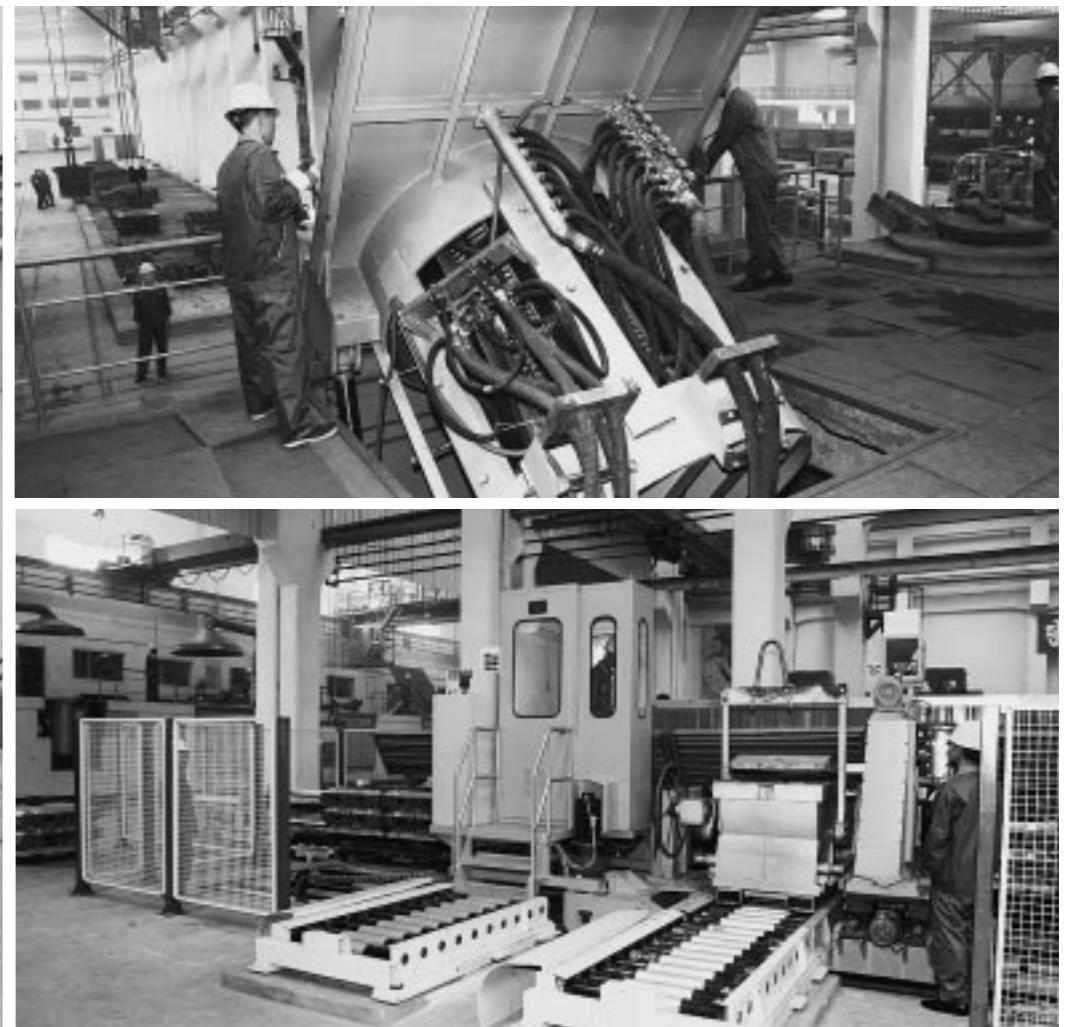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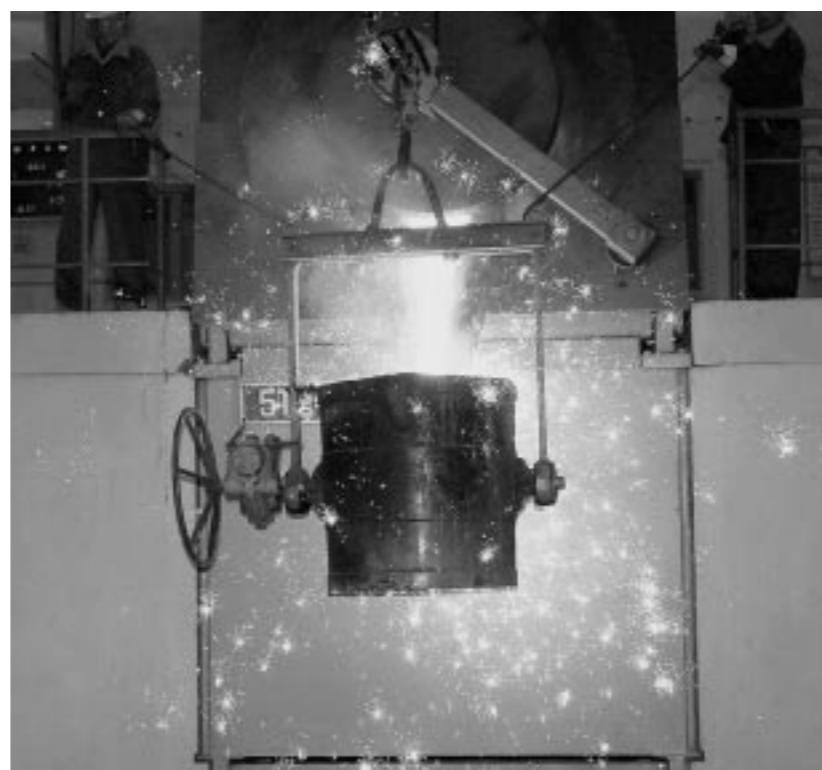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흥남의 로동계급이 비료증산으로

당파 수령을 앞장서 받아들여온 수령결사옹위의 선봉부대답게 사회주의건설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가스화공정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정도로 주체

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시고로 동계급을 시대의 영웅으로,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어버이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강성대국의 승리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올 총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
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광범기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홍석형동지, 태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류현식동지를 비롯한 도와 관계부문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우리당의 《8월 3일인민소비품》 방침제시 26돐에 즈음하여 열린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에는 도안의 중앙공업과 지방산업공장들, 가두인민반들에 조직된 가내작업반들에서 생산한 493종에 4만여점의 인민소비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인민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총성의 일념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함경남도인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로동계급과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부문의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8월 3일인민소비품》방침을 높이 반들고 출기찬 투쟁을 벌려 부산물, 폐설물을 비롯한 온갖 내부예비를 랑구동원하여 각종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드넓은 전시장에 전시된 옷과 신발, 식료품, 가정용품, 부역세간, 학용품, 문화용품, 일용잡화 등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돌아보시면서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시된 《8월 3일인민소비품》들을 일일이 보시면서 도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에 대한 혼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여러가지 대중소비품들을 다양하고 맹시있게 만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 공장, 기업소

들과 가내작업반들에서 부산물과 폐설물로 생산한 쓸모있는 소비품들이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인민생활에 많은 보탬을 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지난기간의 경험은 우리 일군들이 이악하게 투쟁할 때 큰 밀천을 들이지 않고도 인민들에게 필요한 경공업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다는것을 응변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조박의 천이나 한오리의 실도 버리지 말고 다 리용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맵시있고 쓸모있는 경공업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량을 늘이며 직매점을 통한 상업봉사활동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도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일본새와 투쟁기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온 나라에서는 우리당이 제시한 《8월 3일인민소비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타번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과정에 도, 시, 군,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필수품직장,

작업반과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원대렬파 인민소비품의 가지수가 끊임없이 늘어나 인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현실은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증적운동으로 힘 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신 후 현지에서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는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당 및 행정경제기관들과지도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은 생활이 유족해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질좋은 상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고 하시

면서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는 한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8월 3일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모든 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10월의 대축전장에 충성의 로력적선물을 안고 몇몇이 들어서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함경남도에서는 날에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앞으로도 강성대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계속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함경남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련일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며 자기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몸다 바칠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시 뮤 음

한국

신안선

온 세상 보란듯이
하늘땅을 뒤 흔드는 동음속에
장쾌하게 쏟아지는
우리의 주체비료

이 날을 위해
낮과 밤 따로 없이 불야성 이루던 땅
결사관철의 불꽃튀는 전투의 나날 속에
맞이 한 대성공의 환희여

말하라 비료여 네가 아니나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라고 바라시던것
이 땅의 겹은금을 다 캐여서
기어이 비료산을 쌓으시려던
수령님의 소원

주체비료 너를 위해
우리 장군님 지새우신 낫과 밤은 얼마
였던가
최전선을 달리시는 천만리길에서
불면불휴로 안아오신
오늘의 이 승리 !

모여 드리고 싶어
우리 수령님께

비료 바다 기쁨의 바다

박 경 삼

주체비료 !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기쁨의 눈물이 앞서는
우리의 주체비료 !

손에 손에 떠안고
서로 울고 웃으며
온 나라의 대경사를 한껏 터치는
남홍땅은 그대로 기쁨의 바다

이 날을 위해
이 비료를 위해
불볕길 눈보라길 다 헤쳐오신
어버이 장군님 모습을 우러르노라
비료가 쏟아지는 남홍소식을
텔레비죤에서 보고 왔다고
쌓이고 쌓이는 비료산우에
환한 미소를 엿으시는 우리 장군님

그이 마음속엔 울리고있었더라
오늘을 그리도 소원하신 우리 수령님
7월의 그 마지막협의회에서도
비료가 많이 나와야 우리가 잘 살수 있다고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고

『천안』호사건을 날조하여 조선동서해에서 우리를 걸고 광란적인 해상훈련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남조선의 피뢰군부 호전 광들은 드디어 조선서해 5개 섬 린근수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8월에 들어서면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린근수역에서 지상, 해상, 수중 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벌리려는 피뢰군부 호전 광들의 해상사격 소동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신성한 우리 공화국령 해에 대한 불법적인 침습 행위로 이미 명분과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끌까지 고수해보려는 무모한 정치적도발이다.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하여 시작된 피뢰들의 반공화국 날조 모략 소동이 최근년 간 리명박 역적 폐당이 벌리고 있는 용납 못 할 가장 엄중한 도발 행위라면 이번 해상사격 소동은 우리의 자위권을 노린 직접적인 군사적 침공 행위이다.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역적 폐당의 무모한 해상사격 소동을 강력한 물리적 대응 태도로 치안하는데 대처, 단축화 결심을 채택하였다.

이미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바와 같이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대응 태격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서해 5개 섬 린근수역에서 어선들을 포함한 모든 민간선박들은 역적 폐당이 설정한 해상사격 구역에 들어가지 말 것을 시전에 알린다.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불변의 의지이고 확고한 결심이다.

중고한 정신세계와 애국적현상의 발현

에서는 200년간 귀여운 장군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장산에 더욱 뜰 뿐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하여 왕밤나무, 단풍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10여 종의 나무 1200여 그루를 정성껏 심고 가꾸면서 장산혁명사적지관리사업에 열정을 바쳐가고 있다.

강계농림대학 학부장 김윤전동무는 지난 몇 해 동안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풍토순화시킨 긴 방울가문비나무를 비롯한 11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 1만 4000여 그루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공원 수목원과 장자산혁명사적지에 보내주었다.

인민군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고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돌봐주는 미풍도 날로 활짝 풋펴나고 있다.

중구역 종합식당 종업원들은 희천발전소건설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작업복과 솜옷, 생활필수품, 식료품을 비롯한 많은 원호물자들을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각설과 함께 경제활동들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평성은하폐복공장 종업원들은 경제기공장을 고수하는 군인들이지만 건설장에서 군인건설자들과 일도 함께 하고 현장축 하경제선동도 진행하면서 발전소건설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평성은하폐복공장 종업원들은 경제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을 위함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인민군군인들을 적극 원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성시에 육원과 영예군인들, 부모를 잃은 종업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 그들이 서로 돋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고마움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고 있다.

안주 121호종이공장 종합진료소 허문갑, 평성시상업관리소 중덕식료품상점 김리향, 중구역 동성탁아소 김명희, 평양철도국 평양청년려객렬차승무대 김통철을 비롯한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인민군 대원호사업을 적극 벌리고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 있다.

중구역 종합식당 종업원들은 희천발전소건설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작업복과 솜옷, 생활필수품, 식료품을 비롯한 많은 원호물자들을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에게 넘겨주었으며 각설과 함께 경제활동들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평성은하폐복공장 종업원들은 경제하는 군인과 군인들을 이하기로 결심하고 뜨거운 사랑과 진정을 바쳐가고 있는 안악군토기공장로동자 김은미, 함흥시 해안구역벼섯공장로동자 리춘영, 혜산시 잠업농장로동자 리영희, 순천시의 어느 한 단위에서 교환수로 일하는 리경희, 신천군 호암협동농장제 11작업반 농장원 한옥분, 웅진군종이공장로동자 김은경 등 무들의 아름다운 소행에서도 뜨겁게 느낄 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당시 말려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 충실향과 애국적 협신성도 높이 발휘되고 있다.

통강군전기기계수리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창동무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음향설비들과 방송설비들을 만들어 전국각지에 보내주었다. 그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계밀에 방송설비들과 음향설비들을 높은 수준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튼튼한 목재기계설비를 제작하여

각종 경쟁장을 비롯과 함께 경쟁률을 많이 만들어 전국각지에 보내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당의 목소리가 인민들에게 제때에 전달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순결한 교육자적 태도를 지닌 평성시 봉학중학교교원 허혜숙동무는 지난 30여년간 교육사업에 헌신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수십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키우는데 기여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인 김용화동무는 누가 보건말건 깨끗한 땅심을 지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이 지니고 있는 숭고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애국적 헌신성을 뜨겁게 보여주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투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더욱 아름답게 펼쳐나고 있다.

리 나란 위모상과 이 도네시아위모상 희달

【평양 8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박의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라덴 모함마드 마르띠 물리아나 나델레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외무상의 회담이 2일 외무성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 일행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전국 8월 3일 임민소비품전시회 개막

【평양 8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 8월 3일인민소비품 전시회가 3일 중앙경공업제품 견본관에서 개막되었다.

소비품이 출품되였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의 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 전시한 제품들은 품종과 형태가 다양할 뿐아니라 생활에서 필수적이면서도 쓸모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 관계부문 일군들, 각지의 소비품생산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 설 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모든 단위에서 올해에 지방자재와 농부산물, 나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소비품

얼마전 우리는 한 미술가가 남기고간 습작품들을 펼쳐보게 되었다.
백두밀림속의 혁명전적지들과 립산, 광산지하막장들을 비롯한 들꽃은 대고조전투장들을 담은 화폭들중에서 백두산을 형상한 많은 습작품들이 류달리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백두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혐의의 성산 백두산을 마음

자 는 경 애 하 는
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
쁘신 속에서도 8월 3일
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
리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말들고 모든 단위에서 올
리방자재와 농부산물, 내
를 탐구동원하여 인민들
호와 요구에 맞는 소비품
들을 더 많이 생산함
으로써 당의 경공업
혁명방침 판철에 적
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
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는 당의 혁
명한령도밑에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
운동의 불길높이 소
비품생산을 늘임으로
써 인민들의 물질문
화적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서 좋은 계
기로 될것이다.

얼마전 우리는 한 미술가가
남기고간 습작품들을 펼쳐보게
되었다.

백두밀림속의 혁명전적지들
과 림산, 광산지하막장들을 비
롯한 들꽃은 대고조전투장들을
담은 화폭들중에서 백두산을
형상한 많은 습작품들이 류달
리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었다.

백두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나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마음
속에 안고산다.

그 습작품의 주인인 량강도
미술가동맹위원회 위원장이였
던 백승학동무도 바로 그런 사
람이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
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
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
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
어야 합니다.»

미술가로 한생을 살아온 백
승학동무가 백두산을 제일 사
랑하고 백두산을 혁신의 미술

백두산기슭에 새겨진 삶의 자욱

한 미술가가 납김 습작 품들을 보내

작품을 특별히 많이 창작하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해방전 산설고 물설은 이역땅에서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던 백승학동무의 부모는 언제나 백두산을 가슴속에 소중히 안고 이 나라 조종의 산에서 울리는 항일대전의 총성을 심장으로 들으며 민족적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었다.

백두산을 정신적기둥으로 삼았던 가문의 가풍은 백승학동무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도미술가동맹위원회 위원장사업을 하게 된 그는 동맹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백두산에서 사는 창작가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런 승화적 기간을 알고 있던 수십년간 도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빠짐없이 찾아보았다.

백두산에 대한 명화폭을 펼쳐놓자면 무엇보다 혁명의 성산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는 창작적좌우명을 안고 그는 백두산밀영을 자주 찾아가군 하였다.

그 나날에 창작된 『천지의 아침노을』, 『가을의 백두삼천리별』, 『봄의 격류』 등 백두산에 대한 수많은 소묘, 조선화, 수채화작품들은 뜻깊은 기념일들을 맞으며 평양에서 열린 국가적인 미술작품전람회와 전시회들에 입선되였다.

지난 3월 중순에 그는 앞으로 있게 될 국가미술전람회에 내놓을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 불편한 몸이지만 먼길을 떠났다.

봄날씨는 몹시도 추웠다. 안해 최순선동무는 남편의 건강상태를 걱정하면서 날이 좀 풀리니면 아까운 눈과 고기는 그하였다.

그러자 백승학동무는 『백두산은 바로 이런 때 보아야 하는거요.』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떠났다.

포태지구의 높은 등판정점에 이른 그는 백두산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눈보라가 심하여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포태에서 수십리 떨어진 삼지연읍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다시 허항령 높은 마루를 향해 숫눈길을 헤치기 시작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으며 상상해보던 그런 깊은 수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창작적령감이 무수히 떠올라 흥분을 겪잡지 못하였다. 그는 허리를 치는 눈속을 헤치며 끌끌내 높은 산정에 올랐다. 하늘땅을 분간할수 없게 휘몰아치던 눈폭풍이 가라앉고 해빛이 쏟아지는 순간 그는 머리를 드었다.

도문묘에 그려지게 하든 원문 덮인 아득한 평야, 눈보라가 희오리치는 이깔숲너머로 보이는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

그는 추운것마저 잊었다. 곱아드는 두손을 비벼가며 속사를 하고 사진기사다를 편히 눌렀다.

강한 폭설이 쏟아지던 다음날 또다시 눈길을 걷던 그는 그 길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눈덮인 조국의 산과 들을 넘어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다고 동맹원들에게 늘 외우며 백두산기슭에 소중한 삶의 자욱을 새겨간 백승학동무!

그는 이렇게 우리곁을 떠났다.

그러나 우리 미술계에 남긴 백두의 정취풍기는 수많은 작품들과 더불어 백승학동무는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멀쳐가는 총진군의 대오속에 오늘도 서있다.